

도시미관(都市美觀)과 경관조명(景觀照明)의 계획과 설계 ①

글 / 이 순 형 (주)선강엔지니어링 대표이사·기술사

1. 서론



도시환경에 대한 조명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도시의 경관조명은 야간의 도시를 빛으로 장식하고 미화해서 아름답게 하며 시민통행의 안전과 도

시의 치안을 향상시켜 도시의 품위를 높여 줌으로써 도시문화의 척도가 되고 있다.

근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각국에서는 점차 도시경관(都市京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도시활동시간이 야간으로까지 연장되면서 인간의 활동이 주간만이 아니고 야간으로 이어져 도시공간에서도 24시간 주야 도시화 현상이 나타나 아름다움과 쾌적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경관을 지탱하는 요소의 하나로서 조명이 차지하는 역할이 극히 중요하다 하겠다.

이미 도시의 경관조명(京觀照明)은 도시경관(都市京觀)의 일부가 되어 야간에는 도시경관의 연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역사적인 건조물이나 교량을 투광조명하는 라이트업(Light Up)이나, 도로, 광장, 공원등의 경관조명으로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는 일들이 주요도시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주간에는 눈에 띄지 않던 건물들이 경관조명과 함께 도시의 랜드마크에 의해 그 도시의 역사나 개성의 상징으로서 야간의 경관속에 떠오르게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2. 경관조명의 기능과 목적

조명은 어두운 환경에 있는 대상물을 밝게 비추고 생생하게 돋보이도록 시각적으로 강조, 쾌적화, 미화하여 도시의 야경을 한차원 끌어 올려 신선함을 느끼게 한다. 이런식으로 도시의 야경을 개선하고 여행자에게 도시의 야경을 아름답게 느끼게 하며, 시민들에게도 도시환경의 품위를 느끼게 해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한다.

3. 도시의 경쟁력 확보

지금 세계각국은 무한경쟁체제 속에서 살고 있다. '90년대 초반까지 세계의 무역환경을 이끌어 왔던 GATT체제는 이제 WTO라는 무한경쟁체제로 바뀌면서 국가간, 이태올로기간 무역장벽이 없어지고 오직 국가의 경쟁능력에 의해서 무역이 형성되고 시장이 이루어지는 대 변혁기를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오직 적자 생존의 법칙이 중요한 경쟁의 척도가 되어 버린 것이다.

교통과 컴퓨터의 발전, 통신의 발달에 의해 이루어지는 세계화가 현대 사회의 방향의 한 축이라면, 지방화는 풀뿌리 민주화가 강조되면서 또 다른 한 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 따라서 앞으로 국가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도시간의 경쟁은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간의 경쟁력은 국경의 존재마저 희미해지는 세계 국제경제의 거점으로서,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국제 도시들이 부

상하면서 무역과 금융,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산업들이 입지 하면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 도시의 경쟁력은 인간의 삶의 질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면서 지정학적 위치 못지 않게 도시환경의 쾌적함이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도시의 경쟁력의 척도는 실제 사람이 생활하고 있는 도시가 얼마만큼 살기 편안한 요소를 갖추었느냐 즉, 도시의 쾌적함(Amenity), 안정성, 공해의 적음, 친근감, 도시경관의 아름다움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도시의 경관적 요소가 도시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함에 따라 도시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이나 역사적인 유산들을 활용하여 도시의 미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아름다운 도시의 야경 연출은 이러한 도시 경쟁력의 제고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도시 야간경관조명 사례를 외국 및 국내의 경우를 먼저 소개하고 계획 및 설계방법은 차근차근 설명하기로 하겠다.

4. 근래 조명의 동향과 국가조명정책방향 및 경관조명의 사례들

4.1 경관조명의 역사

실내의 분위기와 스타일을 보여주는 장식적 조명은 일찍이 유럽에서부터 「육외조명」이라는 개념이 퍼지기 시작했으며, 그 선구자로 꼽히는 프랑스의 경우, 루이 14세시절 법으로 각 가정에서 밤에는 창문에 등을 켜두도록 했다고 하며, 이는 어두운 거리를 밝히는 최소한의 안전책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로등으로 발전했고 이런 거리조명을 시작한 루이 14세를 「태양왕」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조명을 처음 시작한 파리는 「빛이 나는 파리」로 선전해 방문해보고 싶은 관광도시로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본격적인 경관조명으로 문화재를 투광기로 비추기 시작했고, 1928년 개신문이 밝혀지고 콩코드광장의

화려한 조명이 화제가 됐으며, 유럽전역에 문화재와 건물들을 비추는 거리조명이 이때부터 파리를 본보기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4.2 외국의 경관조명 사례

4.2.1 프랑스의 파리

오래전부터 경관조명이 잘되어 있는 도시이지만 새천년을 준비하는 프랑스 파리의 야간 경관조명은 너무나 인상적이었다. 세느강을 가로지르는 36개 다리가 새로운 조명과 함께 다시 태어났다. 난간과 아치아래 설치된 전등 6,500개의 조명을 받으며 미라보와 풍네프, 가로젤 등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세느강의 다리들은 강물 위에 전혀 새로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새천년을 대비한 세느강의 조명작업은 지난 93년 시작돼 8,200만프랑 우리 돈으로 약 160억원의 예산을 투자했다고 하며, 또한 섬세한 조명으로 각 다리의 건축양식과 위치등 분위기를 최대한 살리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한다.

2000년 1월 1일 0시 새천년의 빛의 축제는 파리 심장부 에펠탑의 2만개의 번쩍이는 조명과 함께 화려하게 시작 되었다.

4.2.2 프랑스의 리용시

세계적으로 도시의 경관조명에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당연히 프랑스의 제2의도시 리용(Lyon)시입니다. 당시는 파리의 남쪽으로 40km 떨어진 인구 40여만의 도시로, 로마시대에 도시가 형성되어 풍부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갖춘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그간 파리의 위성도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였다.

이에 1989년 당선된 미셀누아르 시장이 “아름다운 밤의 도시”를 공약으로 내세워 매년 시예산의 1.5%를 투자, 130여개의 건축물, 교량, 공원 등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였다.

이 계획은 1994년 계획의 대부분이 완성되어 리용시는 아름다운 야경의 도시로 거듭나

게 되었으며, 또한 매년 10월 8일 경관조명 페스티벌의 축제를 열어 세계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밤의 도시」라는 주제로 실시된 이 조명계획은 컨벤션센터 사업과 연계돼 G7 등 주목받는 회의를 치르는 국제도시로 탈바꿈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으며, 역사 깊은 도시, 실크와 음식문화로 유명한 리용은 이제 「밤이 아름다운 도시」라는 자랑을 하나 더 보태게 되었다.

4.2.3 일본의 요코하마

일본의 야경은 1970년 말에 시작하여 그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도시재개발, 지역재정비라는 추세 속에서 야경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는 건축물에 경관조명을 연출하게 되었다.

1986년부터 밤의 도시경관 연출을 시작한 요코하마시에는 「민·관의 야경연출 사업추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도시환경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경관조명의 시설비 및 전기료의 80%를 공공단체나 전력회사에서 지원하고 있다.

4.2.4 일본의 고베

일본의 古都 고베시도 94년 수도지정 1천 2백주년 기념으로 이 도시의 역사 문화재에 조명 디자인 계획을 내놓았으며, 4개의 큰길, 건물과 주변 숲에 전문디자이너들이 설치한 빛의 작품이 색다른 야경으로 선전되고 있다.

4.2.5 일본의 나고야

나고야시는 시의 상징인 나고야 성을 비롯하여 시청사 및 시의회, 항만관리청사 등 많은 공공시설물에 경관조명을 하였으며, 특정가로 구간에는 가로등 조명디자인을 반영하여 밝고 아름다운 거리연출을 하고 있다. 시내 중심에 있는 TV 방송탑에도 조명이 되어 있는데 밤11시 정도면 공공시설물의 조명은 거의 꺼지고 일반 민간부분의 상업시설 등에는 민간자율로 밤새도록 조명을 하는 데도 있다.

4.2.6 일본의 히메지시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국보급인 히메지성을 중심으로 경관조명을 계획한 히메지시는 경관조명에 있어서 몇 가지 독특한 컨셉을 가지고 있다. 시 전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 도심부와 교외부를 분류, 지역적 구분을 분명히 하고 지역의 특성을 창출하는 조명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지역의 행사와 연계시켜 지역의 활기를 넘치게 하고 있다.

경관조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 전역이 무턱대고 조명으로 밝혀야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어두워야할 지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생태계의 악영향, 아름다운 밤하늘(달빛, 별빛 등의 자연광)에 빛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2.7 이태리의 로마

시내 중심부의 “베네치아 광장”과 “황제들의 공회장거리” 주변은 상당히 밝고 건축물에 대한 경관조명도 고대 성터보다는 밝게 조명한 것이 특징이다. 광장 중앙에 있는 “빅토리오 엠마누엘 2세 기념관”은 건축물 전체가 흰 대리석인 것을 잘 표현하기 위하여 백색조명을 했는데 너무밝아 광장 주변까지도 대낮같이 비추고 있다.

로마는 도시 자체가 문화재인 것처럼 가는 곳마다 고대 로마시대 때의 유적부터 중세, 근세에 이르기까지 대리석 건축물들이 많았는데 오벨리스크 같은 기념탑 등에도 백색 조명이 많이 설치 되어 있다.

4.2.8 영국의 런던

런던의 도시조명은 193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기념물, 궁전 그밖의 역사적 건물을 조명한다는 것은 파리와 같지만 박물관, 도서관 같은 시민과 친근한 곳에 야간조명을 실시하여 거리를 밝게 한다고 하는 것은 런던만의 도시조명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70년대 「런던의 거리를 강가로 되돌려야 한다」

는 슬로건 아래 계획된 「Light up Thames」는 석유 파동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런던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 계속해서 실시되어 대성공을 거두어 현재와 같은 아름다운 강변 야경을 연출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례는 IMF를 겪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4.2.9 미국

아리조나주의 피닉스시는 도심조합과 민관협조 체제로 114억을 투자하여 각종 가로시설물 설치 및 도심상권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오하이오주의 선테빌시는 시에서 지정한 고건축 보존지역 인접지역의 도로정비계획에 29억을 투자해 미적인 가로등의 설계 시공으로 야간조명개선 및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의 조도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웨스트 할리우드시는 도로변 도시계획의 일부인 가로등 신설계획을 전기회사와 민관협조 방식으로 하는데 기초공사와 전기료는 시 부담, 그리고 가로등의 소유권, 공사비, 관리 및 운영권은 전기회사에 있다.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시는 공공지역(공원, 광장 등)과 건물의 야간경관 개선사업(5개년 계획)을 민관협조로 시행하며 시와 가스, 전기회사, 도심번영회, 건물주 및 관리자 협회 등의 협조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4.2.10 중국의 상하이

상하이는 중국내에서는 최대의 상공업, 경제의 중심지로 현재 홍콩에 있는 외국 투자업체들을 이전 유치하고자 당과 시에서 외국자본을 끌어들이어 푸둥 특구를 집중개발하고 있다.

특구의 야경은 뉴욕의 맨하탄이나 홍콩, 싱가포르 등의 수준으로 1850년대 개항당시의 유럽풍 고건축물로부터 최근의 초현대식 건물에 이르기까지 많은 건축물에 경관조명을 설치했다.

동양 최고의 높이의 상하이 방송타워(468m)에 경관조명을 설치해 조형미도 뛰어난 시의 상징성과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4.3 국내의 경관조명 사례

국내에서는 아직 인식부족으로 야간조명시설 투자에 인색하지만 도시의 야경은 도시 이미지와 관광수입과도 직결된 고부가가치를 낳는 투자이다. 이러한 내용을 파악한 전국의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공공건물과 특색있는 다리 등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기 시작하고 있다.

4.3.1 서울시

서울의 어두운 도시경관을 계획적인 조명으로 서울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재, 시설물 등이 조명과 어우러져 아름답고 역동적인 야경을 연출함으로써 시민과 방문객에게 시각적 불거리를 제공하여 서울의 친근감을 높이고 애착심을 갖도록 하며, 서울이 국제적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2000년 ASEM 행사와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경기 및 메트로폴리스 총회 등 국제적인 행사에 대비하여 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관광효과를 높이고자 여러 가지 정책을 도입 시행할 계획이다.

1999년 5월,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야간조명을 갖춘 곳은 세종문화회관을 비롯 남대문과 동대문 등 문화재, 그리고 신 행주대교와 성수대교 등 교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편이다.

건물의 경우 동대문운동장 부근을 중심으로 거평프레야, 두산타워 등 4~5개 대형건물을 비롯, 강남구 삼성동의 포스코빌딩이 건물조명시설을 마쳤고 중구 소공로 상업은행 본점 신사옥과 중구 장교동 한화그룹 사옥도 조명시설을 준비중에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관광진흥의 촉진을 위해 “도시관광의 상품화”라는 명제로, 일시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무르는 도시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서울을 야간에도 생동감 넘치는 도시로 꾸미기 위하여, 야간조명시설 설치를 의무

화하는 건축법 등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으며, 市는 우선 1999년 6월중 '서울시 도시환경조명개선사업안'을 마련, 2000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4.3.2 한강의 조명(교량조명)에 대한 최근 동향

현대의 한강은 접근성이 불량하고 이용시설이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력 있는 장소부족 등으로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한강을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가꾸어 일반 시민은 물론 외국관광객도 즐겨 찾을 수 있는 명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최근 서울시는 새 천년을 맞아 한강을 자연친화형 시민휴식공간으로 가꾸기 위한 「새서울 우리 한강」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앞 등 한강 3곳에 2002년까지 水上분수가 설치되고 마포구 상암동 난지도와 양화대교 부근 선유도, 용산구 이촌동 노들섬 등 3곳에는 대규모 강변공원이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부 강변 제방과 둔치는 자연상태로 모습이 바뀌고 곳곳에 강변도로를 가로지르는 보행교가 세워져 시민들이 쉽게 한강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 서울시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시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2002년 월드컵 개최 이전에 주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4.3.3 서울시의 향후 경관조명 추진계획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경관조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고 합니다.

1) 서울시 건축경관 조명상 시상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의 관심과 분위기를 조성하며 관련분야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년 시행하는 건축상에 경관조명분야를 추가 신설(매년 2월 공모, 3월심사, 4~5월 시상 전시)하여 금상 1점 500만원, 은상 1점 300만원, 동상 2점 각 200만원, 장려상 2점 각 100만원을

상으로 지급하고 있음.

2) 서울시 야간경관기본계획 수립

야간경관 조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키위해 전문가에게 용역의뢰하여 야간경관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3) 서울시 경관조명 자문위원회 운영

야간경관 조명연출은 사용광원 및 설치각도 등 고도의 기술과 수준높은 디자인을 요구하는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이라 할 수 있으며 무분별한 조명으로 인한 시각공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명관련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여 기술자문등을 제공

4) 공공부문 시범조명 설치

역사성이 있는 문화재, 건축물, 교량, 공원, 수변공간 등 많은 사람들의 가시권이 양호하고 조명연출 효과가 큰 공공시설물에 우선적으로 조명을 설치하여 시민들 및 방문객에게 시각적 볼거리 제공

5) 민간건축물 조명설치 권장

서울의 주요지점에 신축하는 대형건축물 건축심의시 경관조명을 설치토록 권장하고, 기존의 랜드마크가 되는 대형건축물에도 가급적 설치토록 적극 권장하며, 조명설치시 조명자문위원회의 자문유도

6) 제도 및 관련법규

정비공공을 위한 조명설치시 세계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문화예술 진흥법에의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갈음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에 법개정건의 상기와 같이 서울지도 늦은감이 있지만 선진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3.4 부산

부산을 대표하는 건축물인 부산대교와 광안대교, 용두산공원 타워 등이 야간에 화려한

조명을 받아 웅장한 모습을 자랑하는 관광명소가 된다.

부산시는 2000년 6월까지 8억원을 들여 중구 중앙동과 영도구 봉래동을 잇는 길이 400m의 부산대교에 3가지 색깔의 특수조명을 설치, 아름다운 야경을 만들기로 했다고 1999년 11월 28일 밝혔다.

특수조명이 설치되면 관광객과 시민들이 야간에 멀리서도 아치형 다리의 윤곽을 선명히 볼 수 있다. 특히 부산항과 해안, 고층빌딩, 고지대 주택 등에서 흘러나오는 불빛과 어우러져 이 일대 야경을 한층 운치있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또 부산국제영화제(PIFF)등 각종 문화축제때 레이저빔이 부산대교 위의 밤하늘을 수놓을 수 있도록 특수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길이 7.42km로 국내에서 가장 긴 해상교량이 될 해운대구 좌동~남구 용호동간 광안대로도 2002년 완공과 동시에 뛰어난 야경을 선보이게 된다. 부산시는 이 다리를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길이 1.68km의 현수교와 트러스교에 35억원을 들여 특수조명을 설치하고 광안대로 전구간의 가로등도 야경을 고려, 예술성을 부각하는 조건으로 설계공모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부산의 대표적 명물인 용두산공원내 부산타워(높이 120m)에 1억1,000만원을 들여 3가지 색깔의 조명을 설치, 전체가 드러나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4.3.5 대전

대전시는 시의 야경을 살리고 어두운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고조도(高照度) 가로등을 설치키로 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1999년 말까지 5개 구청별로 400W급 고조도(高照度) 가로등을 공원 등 시민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시범설치 한다.

가로등이 설치될 지역은

- ▲ 서구 만년동 평송 청소년수련원 광장
- ▲ 중구 문화동 서대전 공원

▲ 유성구 충남대 정문앞

▲ 동구 용전동 동부4거리(옛 대전탑 4거리)

▲ 대덕구 범동 청소년 수련원 광장 등이다.

고조도 가로등은 12~15m의 타워폴(Tower pole light)형태로 확산식 조명이 특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연차적으로 이 가로등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4.3.6 제주(서귀포시)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인근 천제연폭포 일대가 오는 2002년까지 레이저 스크린등을 갖춘 전천후 관광지로 개발된다.

서귀포시는 관광지로의 천제연폭포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오는 2002년까지 이곳에 레이저 스크린과 해시계 다리, 출렁다리, 번지점프대 등 각종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천제연폭포 관람 개선 기본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레이저 스크린은 1~3단 폭포중 규모가 가장 큰 1단 폭포에 설치해 선녀가 하강하는 전설을 재현하는 레이저 쇼를 펼치고 숲속에는 카페를, 각 폭포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 야간에도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한다.

폭포 양쪽으로는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 광장과 전망대 사이에는 출렁다리와 해시계 다리를 만들어 관람객들이 폭포를 왕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이밖에 새공원, 번지점프대, 팔각정, 초가원두막 등의 시설물설치도 포함됐다. 서귀포시는 이와 함께 천연기념물 182의 7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천제연폭포 일대 난대림지대 1만3,884㎡를 새롭게 정비, 폭포 일대를 명실상부한 전천후 관광 명소로 개발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기본계획을 토대로 2000년중 실시설계안을 마련,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4.3.7 안동시

안동시로 진입하는 영호대교 첫머리 산자락에서 낙동강변을 지켜선 영호루(映湖樓)에 야간 조명이 설치돼 장관을 이루고 있다. 안동시가 1999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개최에 맞춰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명소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영호루는 진주의 축석루와 밀양의 영남루와 함께 영남의 3대루로 꼽히는 곳으로 현판의 글씨가 고려 공민왕의 친필로 알려지고 있다.

4.3.8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시의 경우 타시도 보다 앞서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정비하는 도시이다. 광한루 앞 승월교를 화려한 분수터널과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 함으로서 남원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있다.

남원시는 이밖에 국악의 도시답게 야외 고연장과 분수, 아름다운 경관조명을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에 설치하여 스치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의 전환이 가능해 지고 있다.

4.3.9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시는 2010년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아름다운 국제해양 도시로의 대전환을 위하여 돌산대교를 비롯하여 진남관, 오동도 등에 경관조명을 설치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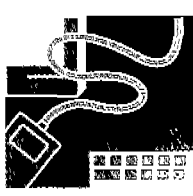
돌산대교의 경우 이미 설계에 들어 갔으며 진남관도 곧이어 2000년 안에 경관조명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4.3.10 기타 타시도

앞에서 소개한 국내의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경관조명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야간경관조명에 대한 인식을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고, 특히 야간경관조명은 유흥가나 설치하고, 또는 예산낭비, 전력 낭비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외국과 비교할 때 국내 실정은 아직도 설득 하기가 무척 힘든 형편이다.

○ 다음호에 계속 됩니다



사/이/버/법/률/시/대

인터넷은 이제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는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간단한 법률사무는 물론 각종 법률상담도 인터넷을 통해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정보통신과 인터넷이 만나면서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 클릭해 보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률사이트

- 벤처법률지원센터 : <http://www.cyberlaw.c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www.klac.or.kr>
- 대구지방변호사회 : <http://www.taegu.net/bar>
- 미추홀넷 : <http://www.ikom.co.kr/inchon/law/lawmain.htm>